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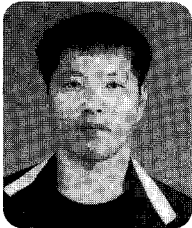


양돈장 인력 가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돈장 인력 가뭄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농장주가 준비해야 할 직원의 복지와 작업 여건



김 남 운 농장장
삼육양돈단지

양돈...

착잡한 심정이다. 구제역의 악몽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이번엔 돼지콜레라다.

신속한 백신접종 결정이 발표되고 돈공과 사람 모두 연속적인 스트레스 속에 필자 또한 오늘에서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백신 수령하고 3일째인가 보다. 돼지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양돈산업도 옛날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은 아닌지. 전에 없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난 날을 보자. 온갖 악제와 시련이 있었어도 항상 탈출의 키워드는 있게 마련이고 획기적인 시설 개선과 사양기술의 향상, 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이 곧 그것이다.

이제 양돈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변해야만 산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농장주가 준비해야 할 직원의 복지와 작업여건」이다.

미묘한 사안이지만 십수년을 관리자로서 일해 보면서 피부로 느낀 점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겠다.

직원 복지와 작업여건~ 먼 꿈과 같은 시절도 있었다. 보은 헬트 지붕에 평바닥 돈사, 돈사 끝 돈방을 활용에 방 한칸을 내고, 살림을 하고, 돼지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되게 일했던 시절...

스파르타식 작업여건에서 처음엔 생활 방편으로 차츰차츰 돼지의 생활사에 빠져들면서 무궁무진한 생체관리에 매료되어 진정한 동물 세계



지금까지는 다두사육과 규모화의 시류에 편승하여 작업 여건, 또는 환경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직원의 복지와 작업여건 개선만이 양돈 성공의 키워드라 하겠다.

첫째가 농장주의 경영 마인드다. 확고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도착 지점은 직원과 공유해야만 하고, 가는 방법은 항상 직원과 토의해야 하며 자율적이어야 한다.

둘째, 주거환경의(작업여건) 개선이다. 돼지는 기록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며 키우는 것이다. 경영주는 시설 투자에 인색해서는 아니된다.

셋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라. 농장주와 직원은 상부상조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호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보면 된다.

를 이해하고자 몸을 던졌던 그 때, 그 때는 진짜 주거환경, 작업환경 모두가 돼지우리 그 자체였다.

요즘 흔히 3D 직업하면 양돈업을 이야기한다.

냄새 나고, 힘들고, 쉴 시간 없고...

하지만 필자는 아주 좋은 직업 중 하나 하면 양돈을 우선으로 꼽는다. 교배에서 분만-유유-비육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가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고 열과 정성을 다해 돈공들을 보살피고 있을 것이다. 때론 즐겁게 때론 힘들게 말이다.

지금까지는 다두사육과 규모화의 시류에 편승하여 작업 여건, 또는 환경에 적잖은 변

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직원의 복지와 작업여건 개선만이 양돈 성공의 키워드라 하겠다.

그 첫째가 농장주의 경영 마인드다.

확고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분명해야 되고, 도착 지점은 직원과 공유해야만 하고, 가는 방법은 항상 직원과 토의해야 하며 자율적이어야 한다. 매주 1회 아니면 월 2회 정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생산과정과 문제점을 토의하고 동기 부여의 자리가 되도록 한다.

농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최고 이익을 얻는 것은 관리자에게 달려 있다.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장주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주거환경의(작업여건) 개선이다.

주위에서 보듯이 이직률이 높은 농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사택과 돈사 모두가 노후해 지저분한 환경, 거기에 일도 많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돈사 보수작업, 오수작업 등...

돼지는 언제 키우는가? 언제 돼지와 눈맞춤을 할 수 있는가? 시간과 돼지와 함께 뒹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돼지는 기록하고, 생각하고, 확인하며 키우는 것이다. 경영주는 시설 투자에 인색해서는 아니된다. 다행이 잘 되면



▲ 농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최고 이익을 얻는 것은 관리자에게 달려 있다.

이 아니고 잘 되게 만드는 것, 비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경영주의 몫이다.

「短一劍一步前進」이다.

짧은 검을 갖고 백날 찢러 봐야 힘만 들고 애타고 줌 지나면 열 받고, 한발 나아가면 될 것을...

인격을 존중하며 상호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로 보면 된다. 양돈이란 타 직업과 달라 시간관념없이 돌봐야 하는 특이한 업종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만이 기록 향상을 가져온다.

농장이 있고 돼지가 있어

셋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라.

농장과 직원은 상부상조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서로의

내가 살아가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고마운 마음을 직원들이 갖고, 이러한 직원들이 있어 더욱 더 윤택해진 생활을 고맙다고 생각하는 농장주가 있으면 바로 성공한 농장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직도 영세 농가가 많다.

시설 투자나 직원 복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는 농장주님, 현장에서 묵묵히 기록향상에 전력을 다하시는 양돈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다 보면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항상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전진에 박차를 가하는 양돈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다! 양돈 ☆꿈 ☆은 ☆ 이루어진다...**양돈**

본지 캠페인

~~비선호 : 하이기 부위~~



“수출 부위”